

# 광주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첫발부터 ‘배격’

시민공천토, 공천규정 발표 연기

일부 참여단체 ‘40% 지분’ 주장

토론회·투표·여론조사 예정대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가 추진하는 광주시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8일 시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참여 단체들 간 경선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빚었다.

단일화의 첫 단추적인 공천 규정과 관련, 시민공천단 투표, 여론조사 비율에 더불어 참여단

체 대표자의 공천 지분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공천 규정 발표가 연기됐다.

시민공천위는 공천 규정 확정에 앞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준상(건설노조광주 지부장) 씨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진행된 공천 규정 토론회에서 시민공천위는 목표로 하고 있는 시민공천단 2만명 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5대50 비율로 합산해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대표자가 공천을 방식으로 시민공천단 투표 30%, 여론조사 30%, 참여단체 대표자 지분 40%를 요구하면서 경선 규정 합의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자 투표 반영을 요구한 단체들은 “대중

투표의 위험성인 인가·인지도 중심 후보의 독주를 방지하고 일시적인 쏠림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단체들은 “시민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겠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출마 예정자는 “단체 대표자에게 40%의 지분을 주는 것은 시민공천이 아니라 단체 대표자 공천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시민공천을 표방해 놓고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오경미 출마 예정자는 “시민공천위 참여자들 가운데 시민공천단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중 투표의 권한을 주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번주내 공천위 실행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

고 밝혔다.

정성훈 출마 예정자는 “실행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시민공천위 관계자는 “안석 상임위원장이 세 후보를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며 “당초 예고된 토론회와 투표, 여론조사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공천위원회에는 110여개 지역 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단체 협의의 기구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시민공천위는 오는 12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9-10일 이틀간 공천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2월11일 단일후보를 최종 선출할 방침이다.

/박선욱 기자

市교육청,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8일 시교육청 누리집과 NED S 고입 시스템,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합격선은 내신석차백분율 98.374%다.

총 지원자는 1만1천762명으로 정원 내 1만1천561명과 정원 외로 분류된 고입특례·특수교육·국가유공자 등 201명이다. 이중 1만1천711명(정원 내 1만1천510명·정원 외 201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51명이었다.

평준화 일반고 합격선은 전체 평준화 일반고 정원 대비 총 지원자의 내신석차백분율로 정해졌다.

올해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전년도 24.6명에서 24.7명으로 0.1명 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중3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정원 조정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학교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박선욱 기자



‘동파 예방’ 시설 점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8일 광주 북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직원들이 용봉동 한 공공화장실에서 내부 난방기 작동 여부를 살피고 동파 방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주말인 10-11일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애리 기자

## 광주 가로수 10그루 중 4그루 ‘생육 불량’

환경운동聯, 작년 2천700여그루 조사

좁은 공간·관리 부족...41.7% ‘신음’

광주 가로수 10그루 중 4그루가 좁은 생육 공간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광주 5개 자치구 주요 가로변 가로수 2천700여그루를 대상으로 시민 참여 조사를 실시한 결

과, 41.7%가 생육 건강 등급 ‘보통’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이하 등급은 줄기 상처, 가지 고사, 과도한 가지치기 흔적 등이 확인돼 관리를 시작해야 하거나 나무의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단체는 2024년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뤄진 곳, 도시철도 공사 구간, 급호타이어 화재 발생 지역 등을 위주로 표본을 선정해 살폈다.

특히 상당수 가로수는 줄, 외아이에 얽히거나 야간 조명을 받는 등 인위적 환경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종은 은행나무와 이팝나무 등 상위 4개 수종이 전체의 86.7%를 차지해 병해충 확산에 취약한 단순 식재 구조다.

단체는 도시개발로 인해 멸종한 나무 수백그루를 베어낸 행정도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서구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에서 대형 가로수가 전문가의 이식 권

고에도 불구하고 제거됐다”며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도 오래된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느티나무 수십그루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 전역에서 개발 논리에 의해 가로수 훼손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로수를 베어낼 때 부과하는 원상회복비용이 묘목을 심는 비용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 입장에서선 보존, 이식보다 벌목 후 묘목 값 지불이 경제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녹지 손실 부담금 부과, 가로수 제거 결정 시 심의위원회 의무화 등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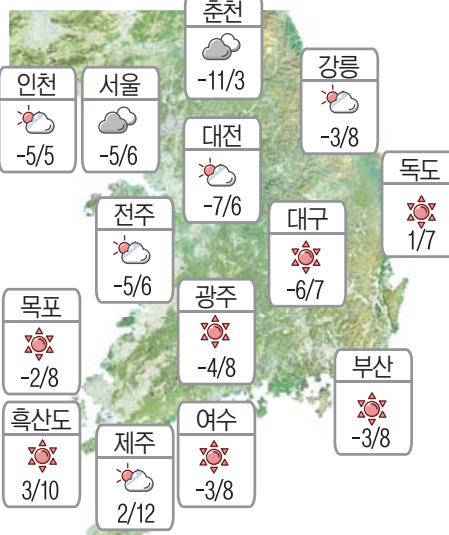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8 🌙달돋이 23:56 달질 11:13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5/8	장성	맑음	-6/7
목포	맑음	-2/8	보성	맑음	-9/7
여수	맑음	-1/8	함평	맑음	-6/8
나주	맑음	-6/8	순천	맑음	-6/7
완도	맑음	0/7	영광	맑음	-5/8
구례	맑음	-4/6	진도	맑음	-3/8
강진	맑음	-7/8	흑산도	맑음	3/10
해남	맑음	-6/8	고흥	맑음	-6/8
광양	맑음	-5/9	담양	맑음	-6/6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북)	0.5-1.0	0.5-1.0
남부	면바다(남)	0.5-1.0	0.5-1.0
	앞바다	0.5-0.5	0.5-0.5
남해	면바다(동)	0.5-1.0	0.5-1.0
	면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6:06	11:14	여수	00:50	06:45	01:31
	18:35	23:48		13:08	19:13	20:38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세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4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10일(토)	11일(일)	12일(월)
☀ (3/7) 맑음	☁ (-3/-1) 눈	☁ (1-6/6) 구름맑음
13일(화)	14일(수)	15일(목)
☀ (0/8) 맑음	☀ (-2/11) 맑음	☁ (2/13) 흐림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